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이효진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3460-1057)

김영선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3460-1272)

이장규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cklee57@kiep.go.kr, Tel:3460-1070)

차 례 ● ● ●

1. 추진 배경 및 개황
2. 시진핑 정부의 주요 추진 현황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최근 중국 지도부는 공식 석상에서 신(新)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을 강조하였으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육상 및 해상 교통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 구축에 관한 구상을 처음 발표하였고, 2014년 4월 10일 보야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는 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추진을 강조했음.
- ▶ 중국은 20~30개국과 고속철 협력을 논의하면서 육상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상 실크로드 연계를 위한 항구 건설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유라시아 고속철의 일부로 중국에서 독일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개통하였으며, 중앙아시아 고속철의 일부로 카자흐스탄까지 잇는 고속철을 개통하였음.
- 중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예멘, 탄자니아, 그리스 등 해상 루트의 주요 거점 국가를 대상으로 항구 건설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은 중국과 협력 대상 인접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향후 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서방 국가들과 일부 신흥국들의 거부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전략은 모두 중앙아시아를 지역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국 정부간 조율과 협력이 요구되며, 한국 기업은 중국의 실크로드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진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철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 및 중국의 고속철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완성될 경우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추진 배경 및 개황

■ 최근 중국 지도부는 '신(新)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을 공식 석상에서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음.

-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 강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구 30억 명을 포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 구축에 관한 구상을 처음 발표했다.
- 시 주석은 유라시아 각국의 경제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상호 협력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조해야 함을 역설하며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함.¹⁾
- 지역협력 계획에 대한 협상 및 정책소통 강화, 동아시아·서아시아·남아시아의 교통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 연결망 확대, 인구 30억 명을 포괄하는 엄청난 시장 규모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간 무역 촉진
- 2013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海上絲綢之路)' 공동 건설을 제안했음.
- 시진핑 주석은 중국-ASEAN FTA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해양 협력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함.²⁾

그림 1. '일대일로' 노선도



주: 빨간색 점선이 육상 루트, 파란색 점선이 해상 루트임.

자료: <http://www.yidaiyilu.cn>.

1) 「中国提出“新丝绸之路经济带”构想」(2013. 10. 15), 『今日中国』.

2) 「习近平在印度尼西亚国会发表重要演讲时强调, 共同谱写中国印尼关系新篇章 携手开创中国—东盟命运共同体美好未来」(2013. 10. 4), 『人民日报』.

- 2014년 4월 10일 보아오 포럼 공식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리커창 총리는 아시아의 공동 발전 실현을 위해 경제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추진을 강조했다.
-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친 개념임.
 - ※ 육상 루트(一帶): 시안 → 우루무치 → 중앙아시아 → 이스탄불 → 뒤스부르크
 - ※ 해상 루트(一路): 푸젠성 취안저우(泉州) → 광저우 → 싱가포르 → 방글라데시 →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 홍해 → 지중해(그림 1 참고)

■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를 거쳐 유럽 대륙을 횡단하는 고대 상업·무역 교통로였음.

- 한(漢)나라 시기에 열린 실크로드는 중국 중원지역에서 시작되어 중앙아시아, 이란 등을 통과하는 지리적인 '길'인 동시에 중국과 유럽 대륙 및 통과지역의 정치·경제·문화를 연결해준 통로였음.³⁾ (그림 2 참고)
- 고대 실크로드는 북방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가장 핵심이었으며, 그 외 남방 실크로드, 유라시아 초원 실크로드가 있었음.⁴⁾
- 현재 일대일로의 육상 루트는 중국 서안을 시발점으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고대 북방 실크로드의 경로와, 해상 루트는 취안저우를 시발점으로 동남아시아 해상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경로와 유사함.

그림 2. 고대 실크로드 지도



주: 빨간색 선은 북방 실크로드, 노란색 선은 유라시아 초원 실크로드, 파란색 선은 주요 연결 노선임.

자료: <http://www.silkroutes.net/orient/mapssilkroutrade.htm>.

3) 오승희(2014), 「中 허난성,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심지」, 코트라 정저우 무역관.

4) 『“絲路帶”新策』(2014. 4. 14), 『财经网』, <http://magazine.caijing.com.cn/2014-04-14/114095339.html>.

■ 최근 중국이 신(新)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는 배경은 △ 아시아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 확보와 △ 자국 변경지역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주변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실크로드의 구축은 이를 위한 명분과 실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임.
- 아시아 역내 최다 접경국인 중국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의지이므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이 반대할 명분이 없음.
- 중국은 역내 철도망 구축의 허브가 됨으로써 인접국의 경제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이권을 확보할 수 있음.
- 중국은 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복잡한 민족문제가 얽힌 자국의 서북(西北)과 서남(西南) 지역의 개발과 안정을 꾀하고 있음.
- 서북 지역인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간수성(甘肅省) 등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인프라 투자 및 물류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 서남 지역인 윈난성(雲南省)과 광시장족(廣西壯族) 자치구 역시 지리적인 편협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동남아로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개발의 모멘텀을 찾고 있음.
- 특히 이런 지역들은 민족문제로 중국의 정정불안을 초래해온 만큼 중국에 잔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포석 아래 이미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정책이 착수되어 초국경 개발협력을 위한 철도 및 도로망 연결 사업이 진행되어왔으며, 최근 주창하는 '실크로드' 전략은 기존의 내부정책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 시진핑 정부의 주요 추진 현황

가. 주요 개통 철도

■ 2013년 7월 총 길이 1만 214km의 허난성 정저우-독일 함부르크 간 국제화물열차의 시범운행을 시작하였음.⁵⁾

- 중국 국경지역인 신장자치구의 아라산커우부터 총 5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폴란드)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하는 이 열차는 16~18일가량 소요되며 연 50회가량 운행할 예정임.
- 이 노선은 해상운송보다 운송시간을 20일 단축하고, 항공운송 비용의 약 80%를 절감하게 되며, 컨테이너당 운송비용은 2,000~3,000위안(약 40~60만 원)을 절감하게 됨.⁶⁾

5) 「郑州开行直达欧洲国际铁路货运班列」(2013. 7. 18),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3-07/18/c_116597568.htm.

6) 리위(2013), 「중국, 정저우-유럽 간 국제화물철도 개통」, 코트라 정저우 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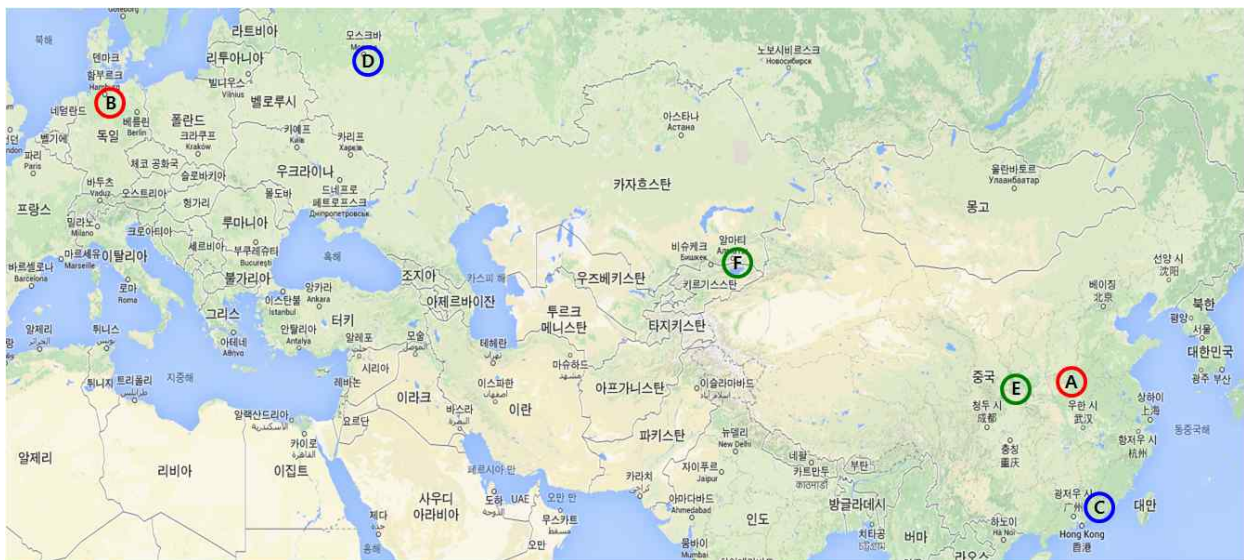
■ 2013년 11월, 총 길이 2만km의 광둥성 둥관-러시아 모스크바 간 국제화물철도를 개통함.⁷⁾

- 위 철도의 소요시간은 15일이며 향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둥관 운송센터를 통해 러시아로 수출될 수 있음.
- 또한 이 철도를 네이멍구 자치구에 건설 예정인 철도와 연계하여 극동지역 진출도 계획하고 있음.

■ 2013년 11월 중국-중앙아시아, 유럽, 러시아로 연결되는 장안호(長安號)가 개통됨.⁸⁾

- 장안호는 시안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러시아 모스크바와 연결하는 2개 노선으로, 그 일부인 시안-카자흐스탄 간 노선이 개통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외기업의 세관신고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함.
- o 시안-러시아 모스크바 노선(7,251km)의 일부인 시안-카자흐스탄 알마티 간 노선(3866km)이 개통되어 시안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6일이 소요됨.
- 이 노선은 2014년 6월부터 주 1회 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여행상품도 출시하였음.

그림 3. 시진핑 정부의 주요 개통 철도 거점



주: A ↔ B는 하난성 정저우-독일 함부르크, C ↔ D는 광둥성 둥관-러시아 모스크바, E ↔ F는 쓰촨성 시안-카자흐스탄 알마티.
자료: 필자 편집.

■ 한편 중국 내에서는 총 길이 1,775km의 우루무치-란저우 간 고속철도가 2014년 6월 완공되었으며, 2014년 말에 정식 개통할 계획임.⁹⁾

7) 「广东至俄罗斯货列车开通」(2013. 11. 24), 『高铁网』, <http://news.gaotie.cn/tielu/2014-05-09/158501.html>.

8) 「“长安号”国际货运班列明日首发哈萨克斯坦」(2013. 11. 27),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11/27/c_118315148.htm.

9) 「今年底兰州至乌鲁木齐高速铁路开通运营」(2014. 2. 26), 『中国甘肃网-兰州晚报』, <http://gansu.gscn.com.cn/system/2014/02/26/010604068.shtml>.

- 위 고속철은 2009년 착공하여 1,400억 위안(약 23조 원)이 투자되었으며, 시속 200~250km로 서부지역의 간쑤성, 칭하이성, 신장자치구 3개 성의 운송시간을 8시간으로(일반열차 20시간) 단축함.
- 향후 중국은 총 1,400km 란저우-장쑤성 쉬저우(徐州) 간 고속철을 2016년 완공할 예정이며, 이로써 중국 동서간 총 3,176km의 고속철을 개통하게 되어 중국 내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게 됨.

나. 신규노선 건설

■ 시진핑 정부는 20~30개국과 고속철 협력을 논의하면서 고속철 실크로드 구상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음.¹⁰⁾

- 중국정부는 2009년부터 유라시아 고속철, 중앙아시아 고속철, 범아시아 고속철 3개 노선 건설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음.¹¹⁾
 - 유라시아 고속철은 영국 런던부터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폴란드 바르샤바, 우크라이나 키예프, 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지나 중국 국경인 신장까지 이어지며, 카자흐스탄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지나 중국 네이멍구를 통해 중국과 연계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고속철은 터키, 이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신장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향후 터키에서 독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범아시아 고속철은 윈난성 쿤밍,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잇는 노선임.

■ 2013년 9월 중국은 '중국-우즈베키스탄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을 잇는 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기로 하였음.¹²⁾

- 양국은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등에 대한 천연자원 공동 탐사 및 개발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2017년까지 교역규모를 5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함.

■ 2014년 2월 시진핑 주석은 소치올림픽 기간 중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중국의 실크로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¹³⁾

-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총 길이 약 9,300km)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연결되는 철도로, 1891년에 착공하여 1916년에 완공되었음.

10) 「中国“高铁战略”布局：正与数十国家谈合作」(2014. 6. 9), 『新京报』, <http://www.bjnews.com.cn/news/2014/06/19/321553.html>.

11) 「中国高铁战略是一盘大棋外媒：或改变全球铁路格局」(2014. 5. 9), 『高铁网』, <http://news.gaotie.cn/tielu/2014-05-09/158501.html>.

12) “Chinese president tables five-point proposal on cooperation with Uzbekistan”(2013. 9. 9),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3-09/09/c_132705632.htm

13) “Xi Jinping Meets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2014. 2. 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站』, http://www.fmprc.gov.cn/mfa_eng/topics_665678/sqdah/t1127299.shtml

- 총 길이 4,018km의 련윈강-시안-란저우-우루무치-아라산커우를 연결하는 중국횡단철도(TCR)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간선을 통해 연결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5월 중국 련윈강 항구에 중국-카자흐스탄 철도 물류센터 건설을 착공함.¹⁴⁾

-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2012년 두 번째 국경간 철도노선인 중국 휘얼귀스-카자흐스탄 제티겐 확장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표 1. 시진핑 정부의 주요 철도협력 추진 현황

시기	주요 노선	현황
2013. 7	중국 허난성 정저우-독일 함부르크	국제화물열차 시범운행
2013. 9	중국-우즈베키스탄	양국 협력강화 및 철도 조기착공 합의
2013. 11	중국 광둥성 둥관-러시아 모스크바	국제화물철도 개통
2013. 11	중국 시안-카자흐스탄 알마티	중국 시안-러시아 모스크바 노선의 일부 개통
2014. 2	중국-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과 연계방안 논의

자료: 언론 매체 참고 필자 작성.

다. 해양 실크로드

■ 중국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항구 건설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남중국해-인도양-아라비아해에 걸친 중국 선박의 기점 확대를 의미함.
- 서방에서는 이를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 명명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음.

■ 중국은 2013년 2월 파키스탄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중국해외항구유한공사(Chinese Overseas Port Holdings)가 항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추가 개발권도 보유하게 되었음.¹⁵⁾

- 2014년 2월 개최된 중국-파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회랑' 추진을 통해 중국 신장과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경제협력지구 건설의 가속화에 합의하였음.¹⁶⁾

14) 「连云港中哈国际物流场站今晚启动」(2014. 5. 19),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photo/2014-05/19/c_126519905.htm.

15) 「中企正式接手瓜达尔港经营权」(2013. 2. 9), 『人民网』, <http://finance.people.com.cn/n/2013/0220/c1004-20534431.html>.

16) 「中华人民共和国和巴基斯坦伊斯兰共和国关于深化中巴战略与经济合作的联合声明」(2014. 2. 1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站』, http://www.mfa.gov.cn/mfa_chn/zyxw_602251/t1130162.shtml.

■ 2013년 2월 중국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에 합의하고 8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¹⁷⁾

- 2014년 6월 중국-방글라데시 정상회담에서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벵골만 소나디아 심수항에 대한 중국의 건설투자 유치의사를 표명하였음.¹⁸⁾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3월 아프리카 순방 시 탄자니아를 방문하고, 바가모요 항구 개발을 위한 투자개발 협정을 체결하였음.¹⁹⁾

- 위 항구는 초상국 국제유한공사(China Merchants Holdings International Company Ltd.)가 2015년부터 건설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함.

■ 2013년 8월 중국이 5억 달러를 투자한 스리랑카의 콜롬보 국제컨테이너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하였음.²⁰⁾

-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은 2012년 초상국 국제유한공사에 위 터미널 투자를 위한 3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초상국 국제유한공사가 운영을 담당하며 85%의 지분을 보유함.
- 중국이 차관과 기술을 제공한 스리랑카 함반토다 항구가 2012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음.²¹⁾

■ 2013년 11월 중국은 예멘에 아덴항, 모카항의 컨테이너 부두 확장을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음.²²⁾

-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예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예멘 항구 확장건설 및 에너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갈 것을 합의함.

■ 리커창 총리는 2014년 6월 그리스를 방문하여 50억 달러 규모의 무역투자협정²³⁾을 체결함.

17) 「孟加拉国称中国将帮助建设吉大港」(2013. 3. 23), Reuters, <http://cn.reuters.com/article/CNIntlBizNews/idCNCHINA-1942520100323>.

18) "Bangladesh looks to China for deep sea port investment"(2014. 6. 5), International Port Technology, http://www.porttechnology.org/news/bangladesh_looks_to_china_for_deep_sea_port_investment.

19) "Tanzania signs port deal with China Merchants Holdings"(2013. 8. 5),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5/30/tanzania-china-infrastructure-idUSL5N0EB3RU20130530>.

20) "Sri Lanka Opens \$500 Million Port Terminal Built by China"(2013. 8. 5), Bloomberg, <http://www.bloomberg.com/news/2013-08-04/sri-lanka-to-open-500-million-container-terminal-built-by-china.html>.

21) "Sri Lanka's Chinese-built port opens for business"(2012. 6. 7), The China Post, <http://www.chinapost.com.tw/business/asia/asia-china/2012/06/07/343644/Sri-Lankas.htm>.

22) "China to build power plants in Yemen, expand ports"(2013. 11. 16),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2013/11/16/us-yemen-china-power-idUSBRE9AF05A20131116>.

- 리커창 총리는 COSCO(China Ocean Shipping Company)가 개발에 참여 중인 그리스의 피레우스항을 방문하여 해운강국인 그리스와의 해운 및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피레우스항을 기점으로 유럽으로 통하는 내륙지역의 철도노선 인프라 사업에 투자의사를 표명함.

표 2. 시진핑 정부의 주요 해상협력 추진 현황

시기	주요 사안	현황
2013.2	파키스탄 과다르항 운영권 인수	2014년 2월 경제협력지구 건설 가속화 합의
2013.2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2014년 6월 방글라데시, 추가 투자유치 의사 표명
2013.3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개발 협정 체결	2015년부터 건설 예정
2013.8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컨테이너터미널 운행	중국 초상국 국제유한공사가 지분 85% 보유 및 운영계획 중국이 차관 제공한 스리랑카 함반토다 항구 운영 중
2013.11	예멘 아덴항 및 모카항 컨테이너 부두 확장 차관 제공 합의	중국-예멘 정상회담에서 항구 확장건설 및 에너지 관련 양해각서 체결
2014.6	중국-그리스 무역투자 협정 체결	해운 및 조선 협력을 강화할 전망

자료: 언론 매체 참고 필자 작성.

3. 전망 및 시사점

가. 중국의 향후 추진 방향

■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은 중국과 인접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과감한 물류, 에너지 투자는 역내 경제권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서방 국가들과 일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많은 신흥국들이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반기면서도 중국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음.²⁴⁾

23) "China and Greece sign deals worth \$5bn during Li visit" (2014. 6. 21),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27960661>.

24)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3-19, p. 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은 빠르게 발전해온 고속철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철도 연결을 매개로 한 실크로드 경제권 형성을 위한 외교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고속철 기술 및 관련 설비의 건설단가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²⁵⁾ 저가의 고속철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식의 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기준 중국 내 고속철 건설비용은 1km당 1.5억 위안이나, 독일 및 프랑스는 1km당 3억 위안을 건설비용으로 지불함.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전략은 모두 중앙아시아를 지역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정책 수행과 시너지를 위해 양국간 조율과 협력이 요구됨.

-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며, 이는 물류·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창조의 대륙·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자는 구상임.
-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관건임.
-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와 교통·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은 아직 구상단계에 불과하여, 향후 구체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함.

표 3.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와 한·중 경제협력 합의 사항 비교

	중국	한국
우즈베키스탄	(2013. 9 시진핑 주석 국빈 방문 시) -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간 철도건설 조기착공 합의 - 석유, 가스, 우라늄 등 천연자원 공동탐사 및 개발협력 증대 - 2017년까지 교역규모를 50억 달러로 확대	(2014. 6. 16~18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 시) - 양국은 국제 교통망 연계 구축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 동남아·동유럽·서유럽·중동국가들을 연결하는 나보이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복합 물류센터 프로젝트 차원에서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제 교통 허브로서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항공 허브 발전을 위한 호혜적인 협력 확대

25) 「客观看待中国高铁成就」(2012. 5. 17), 『中国工业新闻网』, <http://www.cinn.cn/wzgk/wy/265142.shtml>.

표 3. 계속

	중국	한국
우즈베키스탄	(2013. 9 시진핑 주석 국빈 방문 시) -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간 철도 건설 조기착공 합의 - 석유, 가스, 우라늄 등 천연자원 공동탐사 및 개발협력 증대 - 2017년까지 교역규모를 50억 달러로 확대	(2014. 6. 16~18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 시) - 양국은 국제 교통망 연계 구축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 동남아·동유럽·서유럽·중동 국가들을 연결하는 나보이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복합 물류센터 프로젝트 차원에서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제 교통 허브로서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항공 허브 발전을 위한 호혜적인 협력 확대
카자흐스탄	(2013. 9 시진핑 주석 국빈 방문 시) - 중국의 렌윈강시에 카자흐스탄 철도 화물 터미널 건설에 관한 MOU 체결 - 1,127km의 가스 수송관 공동개발 협약 체결 -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 체결	(2014. 6. 18~20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 시)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국 측 상호협력 제안에 지지 표명 - 교통물류 단지를 비롯하여 양국간 인프라 개발 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 - 국토교통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교통통신부 간 철도분야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투르크메니스탄	(2013. 9 시진핑 주석 국빈 방문 시) - 중국의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gaz는 양국간의 가스 거래량을 추가로 매년 250억㎥ 늘리는 데 합의 - 매년 650㎥의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관을 건설할 계획임.	(2014. 6. 20~21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 시) -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동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

자료: 중국 언론 종합,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 특히 교통·물류 인프라, 철도 등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지역통합 방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구체적으로 교통·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은 에너지 부문의 협력보다는 교통, 물류 분야에 집중됨.
- 향후 철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 및 중국의 고속철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완성될 경우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기업은 중국의 실크로드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진출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우리 기업은 한반도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 유럽으로까지 물류·운송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어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실크로드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비

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실크로드 투자로 파생될 건설 및 조달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중국이 최근 주창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실크로드 관련 자금조달 및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동 은행 설립 참여에 따른 경제적 편익 검토 시 이를 고려해야 함. KIEP